

원유, 세계수요 전망 “양극화”

OPEC, 세계경제 침체로 하향조정 ... EIA는 5만배럴 상향

유럽과 미국의 경제침체로 2012년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예상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OPEC(세계석유수출국기구)은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량이 1일 기준 94만배럴에 그칠 것이라고 2월10일 발표했다.

94만배럴은 1월에 발표한 전망치에 비해 12만배럴 줄어든 것으로, 2012년 세계 1일 평균 수요량을 8876만배럴로 예상한 바 있다.

OPEC은 수요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주요인으로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와 유럽의 채무위기, 앞으로 12개월 간 세계 석유 수요의 불확실성 증대를 지적했으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석유 가격도 석유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IA)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012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량을 1월 전망치에 비해 1일 5만배럴 늘어난 132만배럴로 2월7일 상향 조정했다.

전망이 엇갈리면서 2월10일 발표될 예정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석유 수요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동의 정세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급량 예측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국제유가에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0>